

직지사 첫 여름시인학교

8월 2~3일, 시조백일장도

김천 직지사에서 산사의 고즈넉한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전통 시조 가락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인들의 축제가 열린다.

나래시조문학회(회장 오민필)는 오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제1회 여름시인학교를 직지사 만석전에서 갖는다. 직지사 여름시인학교는 '우리 민족시, 시조를 읽고 쓰자'라는 주제로 우리 전통시조 한 장르만을 다루는 차별화된 여름문학캠프다.

나래시조문학회 권갑하 시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조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직지사 여름시인학교는 시인이나 시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3만원(중고생 2만원, 보호자동반 초교생 1만원)이다. 문의 (02)3703-6090, 018-259-9862 박원구 기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서포터즈 모집 나서

8월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에 대구로 선수단 및 응원단의 동행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조국평화통일교협회 경북대구본부가 북한서포터즈 모집에 나섰다.

평북협 경북대구본부는 8월 15일까지 약 500여명의 북한 선수단 서포터즈를 모집해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에서 포터즈들이 직접 만든 김밥, 떡, 음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북협은 또, 19일 발표되는 '통일유니버시아드 시민연대'에도 참여,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북한선수단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공동대표 장석 스님은 "북한사람들이 대구지역을 처음 찾는 민중이들이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대구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서포터즈에는 대구지역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053)254-9347 박원구 기자



천성산내원사는 12월 법당을 무대로 달빛음악회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천성산 반드시 지켰으면...

내원사 첫 달빛음악회... 불자·수녀 등 300여명 참석
법당무대·마당이 객석... 자연사랑 마음 울려 퍼져

"아두운 길을 걸으며 물소리도 듣고 촉촉한 밤공기도 느껴보세요. 법당으로 가시던 음악회가 시작될 겁니다."

경을 생각하는 25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양동이' 위원장 김명환 씨의 사회로 전영준씨의 자작시 '하늘의 뜻이러니' 낭송, 이성호씨의 노래, 재즈 가수 최대호씨의 공연으로 무르익은 분위기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풍도사 포교국장 정법 스님의 역동적인 수화무로 절정에 달했다.

12일 저녁, 어두워지는 천성산 내원사 주차장에서 지을 스님이 손님 맞기에 분주하다. '천성산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한마음을 이었을까? 울산, 부산, 서울 등지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장맛비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거나 삼삼오오 숲길을 걸어 법당으로 향했다.

간간이 내리는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장소가 내원사 주차장에서 대웅전으로 변경되면서 내원사 창건 1300년 만에 처음 열리는 음악회가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산사를 휘감은 어둠 속에서 환히 불을 밝힌 법당은 무대가 되고 마루, 마당이 객석이 되어 음악회가 시작됐다. 객석은 내원사 주지 혜승 스님을 비롯, 천성산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종교를 초월해 참석한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수녀님, 저녁 예불 후 참석 정진대신 박수부대로 나선 내원사 선방의 스님 등 3백여명의 참석 대중들로 가득 찼다.

지을 스님은 "천성산 관동 노선이 강행될 경우, 용납할 수 없다"며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음악회, 사진전, 전시화전, 시화전 등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15일부터는 4박 5일간 천성산을 다시 오르며 사진, 동영상 자료를 모아 7월 말쯤, 사진전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 용호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11일 방문목욕서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로움도 씻어 드려요

방문목욕서비스 발대식

용호복지관(관장 혜승) 부설 용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11일 방문목욕서비스 발대식을 가졌다. 복지관 앞마당에서 가진 이날 발대식에는 관장 혜승스님을 비롯한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혜승 스님은 "육신의 때를 씻어드리며 그분들의 외로움과 고통도 씻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팔공산 선본사·칠곡 송림사 주변
무분별 상행위 판처... 신도 큰불편

해당관청, 신고받고도 형식적 대응

팔공산 선본사 갖바위와 칠곡군 송림사 인근 상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상행위로 신도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불심에 명이 들어가고 있다.

향의하는 신도들에게는 육설과 쪽언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본사에서 갖바위로 오르는 등산로는 20분 가량이면 갖바위 부처님을 전경할 수 있어 주로 관경을 즐기는 노 보살들이나 가족단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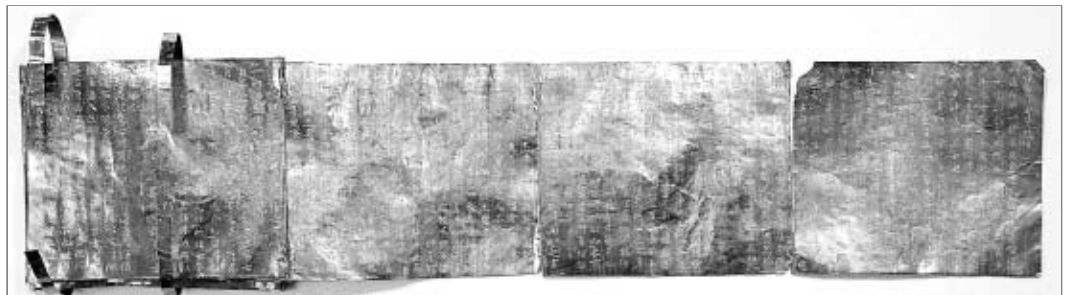
이처럼 갖바위를 찾는 불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을 보다 못한 선본사 신도들이 최근 호소문을 발표했다. 선본사 측은 호소문에서 "이 사업자는 차량 통행을 막아 자신의 무리가 상점에 정착시켜 물품을 구매하면 셔블서비스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0~80대 노인들도 가파른 300여미터의 도로를 도보로 이동케 하는 등 반인륜적 행태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본사는 "경산시의 조직적 유착과 비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선본사 주차장 임대계약과 상가부지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경산시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칠곡군 송림사도 근처에 위치한 테마카페의 불법운영에 의해서 신도들은 물론 신도들의 기도에도 많은 지장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테마카페가 <귀곡산장>이란 이름으로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 팔공산 등산로 일대에서 운영하는 담력코스에서는 참가자들의 비명소리와 귀신소리 등이 끊이지 않아 한밤중 신도들은 물론 신도들이 기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공해가 되고 있다.

송림사 해선스님은 "수 차례 칠곡군과 팔공산 공원관리공단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토록 지도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 실제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통일신라특별전'에 전시되는 익산 왕궁리 5층석탑에서 발굴된 금제금강경(국보 제123호/국립전주박물관 소장).

Advertisement for the 'National Unified Shilla Era Treasure in Korea' exhibition, featuring a bronze stupa and other artifacts.

설화의 현장 따라 경주기행한다

8월13~10월 23일, 매주 세코스 나눠

천년 전 신라 설화의 현장을 따라 이야기를 통해 신라인의 삶과 정신 세계에 담겨진 열과 슬픔을 체험하며 경주기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은 삼국유사에 소개된 이야기를 통해 신라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대대 신라학연구소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시가지 행사의 일환으로 '설화의 현장 따라 경주기행'을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개최한다.

'설화의 현장 따라 경주기행'은 760-1360 박원구 기자bak09@buddhapia.com

죽림사는 신라시대 사찰
중창 상량문서 사실 확인

포항 죽림사(주지 종문)가 신라시대 건립된 사찰로 밝혀졌다.

죽림사는 1809년(조선 순조 9년) 사찰을 중창하면서 올린 상량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소유자로 알려진 포항 모 대학 교수로부터 사본을 전해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상량문에는 포항 죽림사가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중창불사 경위, 당시 주지스님의 법명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박원구 기자

Advertisement for 'Myanggi Myanggi - Siksi Hyangbang' featuring health products like '5-fen fragrance' and 'Sheng Qi fragrance'.

Advertisement for 'Dangshin-do' (당신도) diet program, claiming to help with weight loss and health.

Advertisement for 'Ungangsa' (운장사) featuring 'Wusegwangcha' (五色光채) and other products.

Advertisement for 'Shan' (神山) mountain, featuring 'Nepal Lumbini' and other religious sites.